

Every Living Creature

AUTHENTIC CHRISTIAN FAITH
IN A MULTI-FAITH WORLD

저자:

존 윌리엄스 목사

오스틴 칼리지 교회 관계 디렉터/채플린 •
텍사스주 셔먼

주관

기독교 교육 사무처

미국장로교 선교국



Written by Rev. John Williams, Ph.D.
Chaplain and Director of Church Relations
Austin College, Sherman, Texa

Copyright © 2023 by the Office of Christian Formation in the
Presbyterian Mission Agenc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Scripture quotations marked (NRSV) are from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 1989 by the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Scripture quotations marked (CEV) are from th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 1991, 1992, 1995 by American Bible Society.

이 자료집의 일부분은
특별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교회, 특별 프로그램, 강의 시에 예배나 교육을 위해
복사해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든 또는 간접적으로든 판매할 수
없습니다.



Presbyterian Mission
**Office of Christian
Formation**



차례

서론4

창세기 9:9-16..... 6

마태복음 20:1-16 9

요나 4:10-11 11

시편 139:1-8..... 13

결론 16

읽고나서 생각해볼
문제들 18

추가 독서 자료..... 19



서론

0 자료는 어떻게 장로교인인 개인과 회중이 다각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료는 개인 묵상, 기독교 교육 지도자 간의 대화 또는 교회 내 교육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퓨 리서치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 미국인의 64%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으며,
- 30%는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 그리고
- 6%는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64%의 미국인들이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지만, 기독교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는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할까에 대해서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많은 이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수치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신앙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웃)에 대해 생각하고 관계를 맺을 때, 장로교인들이 생각해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21세기의 미국에서 장로교인이 된다는것은, 다각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래 자료를 활용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나요?*

-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나요?*
- *죽기 전에 크리스천이 되지 않으면, 모두 지옥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까?*
- *교회 밖의 사람들과 우리의 유일한 관계는, 그들 모두가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 되도록 설득하는 것뿐이어야 할까요?*
-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세상에서 신실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비기독교인들과 신앙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장로교 교인과 교회 지도자와 일반 회중이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세계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9 - 16

성경에 언급된 첫 번째 언약은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대화하실 때입니다.
창세기 9장 9~16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 9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개역개정)

이 구절에서 "모든 생물"이라는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세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언약은 "모든 생명체"와의 언약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기독교인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 기독교인만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

기독교 배타주의는 기독교인만이 하나님과 올바르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리고 오늘날까지 많은 진지하고 성실한 기독교인(장로교인 포함)은 어떤 종교는 "옳고" 다른 종교는 "그르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그들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믿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일종의 "제로섬"태도를 취합니다.

"우리가 옳든지 그들이 옳든지 둘 중 하나다. 둘다 옳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 공동체에 국한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종교를 가진 다른 공동체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예: **에스라 9:1-4** 및 **느헤미야 13:23-25** 참조).

신약성경, 특히 요한복음에는 기독교인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개역개정)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개역개정)



미국장로교 **신앙고백서**의 많은 문서가 배타주의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수 세기 동안 장로교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한 이 고백문에는 기독교 배타주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1560년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 교회 밖에는 생명도 영원한 복락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종교를 신봉하든지 **공평과 정의에 따라 사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모독적 발언을 매우 싫어한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생명도 구원도 없다;** 따라서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 그리고 때에 맞춰 그에게 나아와 그의 가르침을 고백하고 그를 믿는 자들 (우리는 믿는 부모의 자녀들을 교회에 포함시킨다) 외에는 아무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신앙고백서3.16)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3.17)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20, 4.071), 제2 헬베틱 신앙 고백서(5.019, 5.077, 5.136, 5.14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및 소요리 문답 (6.056, 6.067).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기독교 배타주의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오늘날까지 많은(아마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기독교 배타주의의 관점에서 생각해 왔으며, 본질적으로 우리는 옳고 그들은 틀렸다고 믿어 왔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세계에서"

성경과 미국장로교 신앙고백서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신실하게 살아갈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할 때, 장로교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추가적인 이야기와 생각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1-16

마태복음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마태복음 20:1-16)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 알려 주셨다고 적고 있습니다(마태복음 20:1).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 한 남자가 어느 날 아침 일찍 포도밭에 일꾼을 고용하러 나갑니다.
- 그는 몇몇 일꾼을 고용하고 "일반적인 하루치 임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하고,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 그는 오전 늦게 다시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도 "일반적인 하루치 임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이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 같은 날 3시경과 5시경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 그런 다음, 저녁에 주인은 그 하인을 시켜 일꾼들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 이제 모든 일꾼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관리자는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에게 먼저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 치의 급여를 받습니다!
- 이를 보고 새벽에 고용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고 마태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섯 시에 고용된 사람들과 동일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그들은 주인에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 1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
우리과 같게 하였나이다 (개역개정)**

13절에 나오는 주인의 대답을 고려할 때 이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3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개역개정)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천국 비유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생각하고 토의할 문제

-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누구와 가장 동일시하나요?
 - 천국과 그곳에 누가 있을지 생각할 때 새벽에 고용된 일꾼처럼 느끼십니까, 아니면 늦은 오후에 채용된 일꾼처럼 느껴지십니까? 왜 그런가요?
 - 일출 시간에 고용된 일꾼들에게 던진 주인의 질문("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은 장로교인과 다른 종교를 가진 이웃, 혹은 종교가 없는 이웃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화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요?
-

요나 4:1-11

□ 태복음 20장 15절에 나오는 주인의 말은 요나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큰 물고기는 잊어버리세요. 요나서의 주요 교훈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요나가 화를 낸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지요?

-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로 가서 설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 요나는 이교도 외국인들에게 설교하러 가고 싶지 않아서 배를 타고 도망치려 합니다.
-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십니다.
- 요나는 배 밖으로 던져집니다.
- 큰 물고기에 의해 구출되어 다시 육지로 올라옵니다.
- 하나님은 그를 다시 니느웨로 부릅니다.
- 이번에는 여전히 생선 냄새를 풍기는 요나가 가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서 이교도 외국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 그런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 니느웨 사람들은 "오, 이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로잡아야겠습니다"라고 결정합니다.
-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리기로 결정하십니다.
- 그래서 요나가 화를 냅니다.
-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기를 바라며 언덕을 올라갑니다.
- 날이 더웠습니다.

- 하나님은 요나의 위로 그들을 드리기를 위해 포도나무를 보내어 자라게 하십니다.
- 요나는 하나님이 그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면 기뻐합니다.
- 그런 다음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 포도 나무를 파괴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성질을 내며 징징거립니다.
그들을 만들어 준 포도나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요나서 4장 10~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넙쿨을 아꼈거든

11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개역개정)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내가 그 큰 도시를 걱정해야 하지 않겠느냐?")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주인의 질문("내가 너그러워지기를 원하는데 왜 네가 질투하느냐?")처럼 들립니다.

이 두 성경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자비와 관심은 새벽에 고용한 일꾼이나 요나,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거나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생각하고 토의할 문제

- *마태복음 20:1-16과 요나서 4:1-11을 고려하면 구원과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이러한 대화는 타 종교 공동체와 교회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시편 139 : 1-8

- 시** 편 139:1-8의 아름답고 심오하며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 1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 2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 3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 4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 5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개역개정)

이 시편은 장로교가 존재하기 훨씬 전에 쓰여졌지만, 장로교인들은 시편 기자에게 참된 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 6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개역개정)

이 시편은 완전하고 충분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은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 7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 8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개역개정)

시편 139편에 따르면, 우리가 죽기 전이나 죽은 후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하고 토의할 문제

- 시편 139편 본문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묘사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알아차리고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나요?
- 이러한 인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비기독교인 이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나 점점 더 다양한 맥락에서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서,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데에 신중해졌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장로교 **신앙고백서**의 많은 문서에는 기독교 배타주의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만, 배타주의를 넘어서는 진술도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인내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하며, 가능한 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고백서 4.107)

제2 헬베틱 신앙고백(1566)에 따르면,

비록 하나님은 누가 당신의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며, 여기저기에 적은 수가 선택된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잘 될 것을 소망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 버림을 받았다고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 (신앙 고백서 5.055)

그리고

누군가 주님께 구원 받을 자의 수가 적겠습니까? 라고 물었을때, 주님은 소수나 다수가 구원이나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도리어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눅 13:24)고 권고하셨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네가 할 일은 이런 일에 대해 호기심을 품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곧은 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신앙고백서 5.056)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세상에도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앙 고백서 5.137)

1967년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종교와 기독교 사이에 **평행선을** 찾으며, **모든 종교에 대해 개방성과 존중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비기독교인들의 통찰력을 이용하여 교회 부흥을 제기하셨다. 그러나 복음의 화해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위임받았다. 그들의 종교를 불문하고, 설령 그들이 무종교인이라고 고백할 지라도 복음을 전파해야 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앙고백서 9.42)

미국장로교 *규례서 운영 체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국장로교는 모든 영역에서 비기독교 종교 조직체들과의 대화와 이해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장로교는 모든 영역에서 **타종교 조직체, 사람들과의 정중한 대화와 상호 관계를 나눌 기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를 추구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온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표징이요 이를 이루는 도구임을 믿기 때문이다. (G-5.0102)

장로교인들은 수세기 동안 다양한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할 때 계속해서 신앙고백의 인도를 받습니다.

결론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요한복음 20:19~31)에서

-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절 밤에 열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19절)
- 두 번이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셨습니다(19절, 21절).
- 24절을 보면, 그런 다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없었던 도마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²⁵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개역개정)

도마는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그 예수님과 일요일에 만났다"는 부활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26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주목하세요.

²⁶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개역개정)

이 부분에서, 일주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 제자들이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근본적인 신학적 요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함께 지냈습니다.

도마는 친구들이 순전히 희망적인 생각에 굴복했다고 생각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열 사람은 도마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자신들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앞부분에서 언급된 '그리스도의 평화'는 열 한 제자가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옳다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생각하고 토의할 문제

- **옳은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제자들의 인식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속에서 진정한 신앙을 실천하려는 현재의 대화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요?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개역개정)

다종교 상황에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할 때, 미가서 6장 8절의 지침을 따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장로교인들에게 좋은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은

- 하나님이 하나님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관대하시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 **모든 생명을** 주목하고, 동행하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편인지 아닌지 걱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것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자신있게, 신실하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우리가 완전히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광범위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위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인내심 있고 풍성한 사랑의 도구가 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좋다고 믿습니다.

생각하고 토의할 문제

- **여러분과 여러분의 회중이 다양한 종교가 있는 환경 속 진정한 신앙을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읽고 나서 생각해볼 문제들

- 장로교와 다른 기독교인들이 수세기 동안 기독교 배타주의를 옹호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도 구원도 없다"고 선언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구원, 천국,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랬습니까?
- 이 자료에서 특별히 흥미롭거나 흥미로웠던 성경 이야기, 아이디어 또는 개념이 있나요?
어떤 것이
있나요?
왜 그런가요?



추가 독서 자료

About Three-in-Ten U.S. Adults Are Now Religiously Unaffiliated

by the Pew Research Center

The Wide, Wide Circle of Divine Love: A Biblical Case for Religious Diversity, by

W. Eugene March

A Multitude of Blessings: A Christian Approach to Religious Diversity, by

Cynthia M. Campbell

Love Wins: A Book About Heaven, Hell, and the Fate of Every Person Who Ever Lived, by

Rob Bell

You Don't Have to Be Wrong for Me to Be Right: Finding Faith Without Fanaticism, by

Brad Hirschfield

Book of Confessions,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I

규례서, F-1.0403 : 미국장로교 헌법, 제 2 부

Why Presbyterians are Like That, "Every Living Creature"의 저자가 기독교 공동체 내

장로교의 특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10회 분량의 성경 공부.

"Religious Pluralism: Learning to Embrace the Abundance of Our Multifaith World," *The*

Presbyterian Outlook, September 2023.